

2018년 송구영신예배 / 시편19:7-14 여호와의 율법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바꾸셨습니다. '엘로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를 말할 때 주로 사용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주로 사용한 이름입니다. 그 언약이 기록된 것이 율법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내 삶에 늘 거울처럼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1.지혜롭게 합니다.(7)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된 첫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소성이라는 것은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언약된 예수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완전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있는자들이 지혜자이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많이 쌓아야만 하는 자들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에서 줄수 없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신령한 은혜가 2019년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2.눈을 밝게 합니다.(8)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이 밝아 졌다는 것은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것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은 수천년이 흘러오면서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눈이 밝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준 지혜에 속아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이 주는 교훈에 마음을 정결케하시고 눈이 밝은 지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영원까지 이르게 합니다.(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정결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섞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가 봐도 정결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인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정결케합니다. 그 은혜로 영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2019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온전한 판단과 분별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새해가 됩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